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이은경** · 김유진***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7명의 자료를 SPSS Macro 3.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은 모두 강점인식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4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부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1을 활용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는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동시에 갖는 조건부 과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5를 활용한 결과, 조건부 과정모형이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부분 매개하며,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강점인식의 선행변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위한 개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강점인식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촉진하였다.

주제어: 강점인식,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 대학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1)을 수정·보완함.

** 상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제1저자, 7450404@naver.com

*** 상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kimyujin10@sangji.ac.kr

I. 서 론

강점이란 가치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정지현, 권석만, 2011)으로, 성격강점이란 긍정심리학에서의 핵심 요인으로 개인의 정서, 사고 및 행동에 반영되어있는 긍정 특질이다(Seligman, 2002). 강점 인식은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Govindji & Linley, 2007). Seligman(2002)은 개인은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성격강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상관이 있으며(Park & Peterson, 2006), 탁월한 성취 및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을 준다(Gardner, 1999). 특히 대학생은 학업, 진로 등의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며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자아개념을 완성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정순, 2011)임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적응하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이러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 강점개입 상담이 시행되고 있다(김지영, 2015; 심명석, 2016).

그러나 Hill(2001)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자신의 강점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일반인들의 강점인식 수준이 낮으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강점인식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김민정, 이회경, 2017; 이지원, 이기학, 2017; 조영아, 이재은, 2018;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강점인식을 매개 변인으로 다룸으로써(백승훈, 2019; 이세진, 2020; 조영아, 이재은, 2018),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관련 변인들 가운데 강점인식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에 대한 외부 정보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신에 대한 인식 태도로서의 자기수용을 강점인식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외부에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정보(사회적지지)가 항상 개인 내부의 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Biswas-Diener, Kashdan and Minhas (2011)는 강점인식과 강점사용이라는 두 가지 접근을 강점 개발이라는 보다 역동적 관점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강점 개발 및 강점 개발의 효과가 개인의 인지적 신념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강점에 대한 마인드셋이라는 보다 협소한 인지적 신념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분야 특히 다양한 자아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개인의 인지적 태도인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김기현, 2009; 이경미, 2013; 이자형, 황성훈, 2012; 나혜영, 202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자신의 노력,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 대한 인식(강점인식 및 자기수용)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을 강점인식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선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강점인식,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및 내적 귀인성향

강점인식이란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ovindji & Linley, 2007).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개인은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Proctor, Maltby와 Linley (2011)는 강점인식을 기반으로 한 상담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 감소와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지영과 권석만(201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실험 처치를 통해 약점인식집단이나 약점보완집단에 비해 강점인식집단과 강점활용집단이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 정서에서 더 큰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을 입증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은 강점인식이 대학생활적응(이지원, 이기학, 2017), 심리적 안녕감(조남근 외, 2016), 진로결정수준(김민정, 이희경, 2017), 진로준비

행동(이재은, 조영아, 2017), 진로적응력(조영아, 이재은, 201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연구는 이러한 정적 관계가 자기효능감(조남근 외, 2016; 이재은, 조영아, 2017), 긍정 정서 및 희망(김혜경, 이희경, 2019), 강점 활용(김민정, 이희경, 2017; 이지원, 이기학, 2017; 조영아, 이재은, 2018)에 의해 매개됨을 밝힘으로써, 강점인식이 심리적 적응을 강화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강점인식은 강점 활용을 매개로 고등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김민, 탁진국, 2017), 행동 의도를 통해 보다 높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예측하였다(이연희, 탁진국, 2019). 이와 같이 강점인식의 적응적 결과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강점인식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일부 연구가 강점인식을 매개 변인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강점인식과 관련된 선행변인들을 보고하였다. 강점인식은 완벽주의(이지혜, 2014)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이애리, 심혜원, 2019)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임애경, 윤채영, 2018) 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들 변인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점인식은 사회적 지지(이세진, 2020; 백승훈, 2019) 및 자기수용(조영아, 이재은, 2018)과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변인들이 강점인식의 선행변인을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강점인식에 미치는 선행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Cohen과 Hoberman(1983)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가족,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애정 및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 역시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지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로 구분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로부터 제공 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으로 정의하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4가지의 하위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갖는 평가적 요소를 강조한 견해들도 있다. 정바른(2018)은 사회적 지지를 부모, 교사, 또래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받는 긍정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김연희와 박경자(2001)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지적 태도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적 지지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사하

게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긍정적 자원들에 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및 부정 정서는 감소시키고(김동임, 조인주, 2017), 긍정 정서(김지영, 권석만, 2013) 및 회복 탄력성(김종운, 김미정, 2017; 배서영, 2017)과 심리적 자원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기능한다는 주장과 일관되게,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김혜원, 2016) 및 자아존중감(김연희, 박경자, 2001) 등 개인의 자아 인식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Williams & Lynn, 2011). 자기수용의 정의는 초기에는 이상적인 자기개념과 현재의 자기개념 간의 일치 정도로 보는 관점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에 대한 신뢰성, 자율성, 객관적인 자기인식 정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정애, 2003). 국내외 자기수용 연구를 종합한 임전옥과 장성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수용의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정서적 경향성, 심리적 현상, 신체조건, 강점과 약점 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넷째, 어떠한 평가와 관련 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현재 마주한 환경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Macinnes(2006)은 자기수용이 주관적 행복과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차별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자기수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한다는 면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르다. 자기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수용은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Chamberlain & Hagg, 2001),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Macinnes, 2006). 아울러 진로적응력(조영아, 이재은, 2018), 진로스트레스(윤성은, 2012), 대인관계(최유람, 이아라, 2019)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ualifah, Barida and faghana(2019)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자기 개념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조영아, 이재은, 2018).

마지막으로 귀인성향이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개인의 독특한 인지적 성향을 의미한다(Heider, 1958). 귀인성향은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이 노력, 능력, 태도 등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보는 내적 귀인성향, 원인이 타

인 또는 타인의 통제 속에서 있다고 믿는 타인 귀인성향, 원인이 우연이나 행운에 있다고 믿는 우연 귀인성향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Levenson, 1981). 세 가지 귀인성향 중 내적 귀인성향은 심리적 안녕감(김현옥, 2010), 대인관계(이윤정, 박미화, 2014), 스트레스(감자영, 허균, 2010; 임성택, 2007), 자아존중감(이자형, 황성훈, 2012; 김연희, 박경자, 2001) 등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학교 생활적응(이윤정, 박미화, 2014), 학습 태도(이재호, 정누리, 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임선아, 이선경, 2014), 학습동기 및 학습결과(Ying, Huamao, Ronghuai, Yanhua & Jingjing, 2008) 등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2.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강점인식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정바른, 2018; Govindji & Linley, 2007)에 기초하며, 외부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백승훈,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정보이며(Cassel, 1976) 개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게 하여 강점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백승훈, 2019). 이세진(202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안은경(201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승훈(2019)의 성취지향목표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자기수용이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로써(Rogers, 1942),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 평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송희(2015)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지지가 자기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해경과 이병록(2011)의 연구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

수용을 통해 우울을 완화하는 관계를 밝혔다. 더 나아가 윤성은(2012)은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성격 강점이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조영아와 이재은(2018)은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강점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을 강화하고 이러한 수용적 태도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적 귀인성향과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과 강점인식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귀인성향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이나 강점인식과 같은 개인의 자기인식에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기현, 2009). 선행연구는 내적 귀인성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타인 및 우연 귀인성향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거나(이자형, 황성훈, 2012)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혜영, 2020) 보고하였다. 이정미(2013)의 연구에서도 내적 귀인성향은 자기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타인 및 우연 귀인성향은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민예슬과 김창대(2018)는 대학생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적 귀인성향이 이를 조절함을 밝혔다. 높은 내적 귀인성향집단에서는 사회적 차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낮은 내적 귀인성향 집단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높은 내적 귀인성향집단은 사회적 차별을 자신의 내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우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시사하는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내적귀인성향과 자기수용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나, Jibeen(2017)은 150명의 파키스탄 대학생의 심리적 불편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좌절내인력에 대한 신념(frustration intolerance beliefs)과 자기수용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고하였다. Jimenez, Niles and Park(2010)은 514명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질적 마음챙김(dispositional mindfulness)과 자기수용의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자기수용을 자기개념에 대한 자기조절기제(self-regulation mechanism)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환경이 자기수용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귀인성향과 같은 인지적 신념체계가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문헌은 다음과 같다. Biswas-Diener, Kashdan and Minhas(2011)는 강점 개발에 있어 역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접근에 의하면 강점은 고정된 특질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의 가치나 흥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이들은 강점 개발은 강점을 고정된 특질로 보는가(고정 마인드셋) 혹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는가(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강점-맹점(strength blind)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로 과제가 어려울수록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prowess)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강점사용의 측면에서 강점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Jach, Sun, Loton, Chin & Waters, 2018). Jach 외(2018)는 36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강점기반 양육이 청소년의 강점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강점 마인드셋(strength mindset)이 조절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비록 이러한 선행문헌들은 강점 마인드셋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인이 특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지적 신념체계가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은 각각 강점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가설 3-1.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조절할 것이다.
- 가설 3-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조절할 것이다.
- 가설 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통합한 조건부과정모형이 유의할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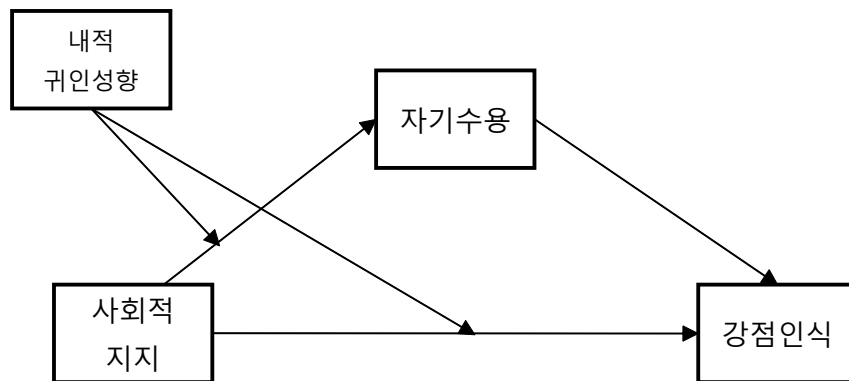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내적 귀인성향의 조건부 과정 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교 중 5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을 사용하여 모집되었다. 총 384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341부 회수되었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27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190명(58.1%), 여학생 137명(41.9%)이며, 나이는 20세 미만 3명(0.9%), 20세 이상~23세 미만 128명(39.1%), 23세 이상~26세 미만 110명(33.6%), 26세 이상 학생이 86명(27.2%)으로 연령 평균은 24.1세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2명(22%), 2학년 103명(31.5%), 3학년 63명(19.3%), 4학년 89명(27.2%)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강점 인식

본 연구에서는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김민정, 이희경(2014)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Govindji와 Linley(2007)는 강점인식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강점인식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다.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강점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척도 총점의 Cronbach α 값은 .87이었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Zimet와 Farley(1988)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표기하여 측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 총점의 Cronbach α 값은 .88이었다.

3)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Chamberlain과 Hagg(2001)가 개발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USAQ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김사라형선(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서은경(2011)이 수정(문항간 공통분이 .30 이하로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추미레, 이영순(2014)의 USAQ 척도 타당화 연구에 의하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삶에 대한 만족, 자기 존중감과는 정적상관이, 불안, 우울, 비합리적 신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수용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다.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척도 총점

의 Cronbach α 값은 .79이었다.

4) 내적 귀인성향

본 연구에서는 Levenson(1981)이 개발하고 안귀덕(1986)이 변안하여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내적 귀인성향 수준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행동적 변인 등 개인 내부의 심리적 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 척도는 귀인성향의 3개 하위요인인 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8개 문항, 총 24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는 3개 하위요인 중 내적 귀인성향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내적 귀인성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귀인성향 척도 총점의 Cronbach α 값은 .71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매개효과 모형과 조절효과 모형의 통합적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 경로분석 접근법(path analysis approach)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인의 총효과(total effect)를 직접효과(dis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통계적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매개효과를 간접효과라 부른다(정선호, 양태석, 박중규, 2019). Hayes(2012)가 제안한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은 조건부 직접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Hayes(2020)가 개발한 SPSS 매크로인 PROCESS는 경로분석접근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를 손쉽게 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SPSS 25.0 와 SPSS PROCESS macro 3.5(Hayes, 20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는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적용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1번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

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조건부 과정모형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모델 5번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각 변인의 기술 통계량 및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특히 강점인식은 사회적 지지($r=.300$, $p<.01$), 자기수용($r=.456$, $p<.01$), 내적귀인성향($r=.474$, $p<.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강점인식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
강점인식	-			
사회적 지지	.300**	-		
자기수용	.456**	.252**	-	
내적귀인성향	.474**	.402**	.215**	-
M	4.94	5.27	4.16	4.43
SD	1.14	1.39	0.95	0.67

* $p<.05$, ** $p<.01$, *** $p<.001$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 신뢰구

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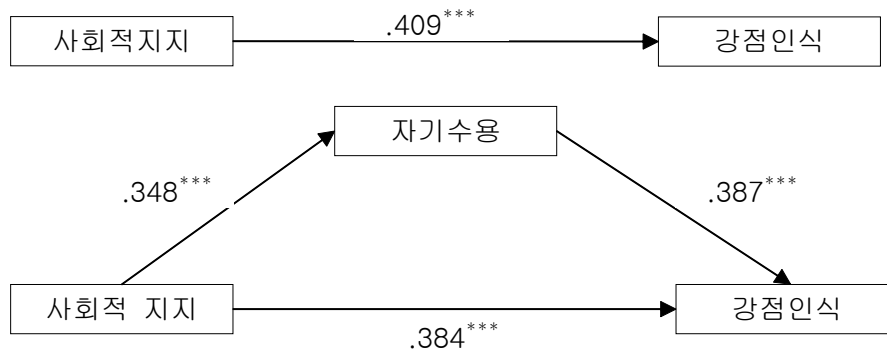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표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변수		B ^{a)}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 (종속변수 : 자기수용)							
상수		2.276	.548	4.155	.000	1.198	3.354
독립	사회적지지	.348	.043	8.040	.000	.263	.433
	성별	.045	.095	.471	.438	-.242	.232
통제	20~22세	-.020	.493	-.041	.268	-.989	.649
변인	23~25세	-.005	.493	-.010	.391	-.976	.866
	26세 이상	-.123	.494	-.249	.204	-1.095	.850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강점인식)							
상수		.511	.656	.780	.436	.780	1.801
독립	사회적지지	.384	.055	6.946	.000	.275	.492
매개	자기수용	.387	.065	5.948	.000	.259	.515
	성별	-.048	.111	-.435	.664	-.267	.170
통제	20~22세	.624	.574	1.088	.278	-.505	1.754
변인	23~25세	.828	.575	1.439	.151	-.304	1.959
	26세 이상	.740	.576	1.268	.206	-.403	1.864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348, p<.001$), 자기수용은 강점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387, p<.001$), 자기수용이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서 강점인식 간의 총 효과는 $B=.409(p<.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자기수용이 투입되면서 사회적 지지에서 강점인식 간 경로의 직접 효과가 $B=.384 (p<.001)$ 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지지에서 강점인식에 이르는 직접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여 자기수용의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즉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표 3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검증

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518	.053	.414	.623
직접효과	.384	.055	.275	.492
간접효과	.135	.029	.080	.191

3.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과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은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B=.278, p>.05$). 내적 귀인성향도 마찬가지로 자기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다($B=.003, p>.05$). 사회적 지

2) SPSS PROCESS macro 3.5(Hayes, 2020)는 경로분석 접근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비표준화계수인 B 값이 기본(default) 통계치로 산출된다. 특히 매개효과모형과 조절효과모형을 통합한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의 결과는 표준화계수인 β 값이 아닌 비표준화계수인 B 값만 산출된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조건부 과정분석 모형이므로, 표기의 일관성을 위하여 모든 분석에서 비표준화계수인 B 값을 보고하였다.

지와 내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쳤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아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B=.012, p>.05$).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의 변화량 또한 .00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적 귀인성향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지지 되지 않았다.

표 4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변수들		<i>B</i>	<i>SE</i>	<i>t</i>	<i>p</i>	LLCI	ULCI
상수		2.373	1.224	1.939	.053	-.035	4.781
독립	사회적 지지	.278	.216	1.288	.199	-.147	.703
조절	내적귀인성향	.003	.274	.013	.989	-.543	.536
독립	사회적 지지						
x	x	.012	.050	.232	.817	-.087	.111
조절	내적귀인성향						
	성별	.049	.096	.512	.610	-.140	.238
통제	20~22세	-.010	.494	-.020	.984	-.982	.962
변인	23~25세	.005	.495	.011	.991	-.968	.979
	26세 이상	-.115	.496	-.231	.817	-1.090	.861
상호작용에 따른		R^2		<i>F</i>		<i>p</i>	
R제곱 증가		.000		0.54		.817	
총 효과		.517		.053		.413	.621
직접효과		.381		.055		.273	.490
간접효과		.135		.028		.082	.191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4.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자기수용과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하게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은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5에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강점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1.051, p<.001$), 내

적 귀인성향은 강점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1.602$, $p<.001$). 사회적 지지와 내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강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184$, $p<.01$), 상호작용항 추가에 따른 R^2 의 변화량은 .021로 유의하였다($p<.01$).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어 가설 3-2은 지지 되었다.

표 5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변수들		<i>B</i>	<i>SE</i>	<i>t</i>	<i>p</i>	LLCI	ULCI
상수		-4.242	1.371	-3.094	.002	-6.939	-1.544
독립	사회적 지지	1.051	.242	4.347	.000	.575	1.527
조절	내적귀인성향	1.602	.307	5.215	.000	.998	2.207
독립	사회적 지지						
x	x	-.184	.056	-3.271	.001	-.295	-.073
조절	내적귀인성향						
성별		-.036	.107	-.338	.173	-.248	.175
통제 변인	20~22세	.746	.553	1.349	.678	-.342	1.835
	23~25세	.988	.554	1.783	.076	-.102	2.079
	26세 이상	.806	.555	1.452	.147	-.286	1.899
상호작용에 따른		R^2		F		p	
R제곱 증가		.021		6.702		.001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사회적 지지와 내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조절변수의 평균값(M)과 ± 1 표준편차($\pm 1SD$)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림 3에서 나타났듯이 내적 귀인성향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강점인식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내적 귀인성향의 수준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강점인식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

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내적 귀인성향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표 6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검증

조건부 간접효과	Effect	SE	t	p	LLCI	ULCI
M-1SD	.361	.063	5.740	.000	.237	.484
M(.000)	.223	.061	3.641	.000	.102	.343
M+1SD	.107	.080	1.356	.176	-.04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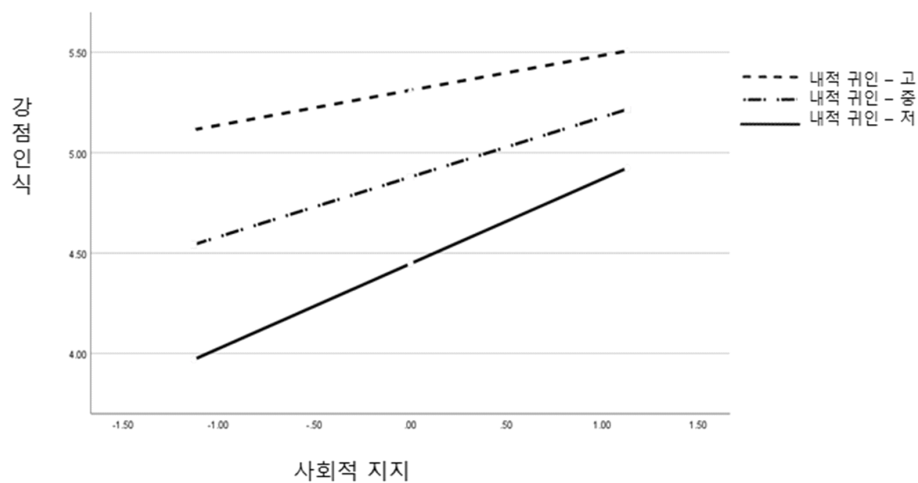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5.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강점인식, 내적 귀인성향의 조건부과정모형

앞선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가정한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매개하고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조절하는 조건부 직접 효과를 설정한 조건부과정모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의 model 5번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5,000회,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348$, $p<.001$), 자기수용은 강점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B=.372$, $p<.001$)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강점인식을 예측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내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다($B=-.188$, $p<.01$). 즉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간의 관계는 자기수용이 매개하고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건부과정모형이 검증되어 가설 4는 지지 되었다.

표 7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강점인식의 관계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경로	<i>B</i>	<i>SE</i>	<i>t</i>	<i>p</i>
매개변수 모형 (종속변수 : 자기수용)					
	상수	2.276	.548	4.155	.000
독립	사회적 지지	.348	.043	8.040	.000
	성별	.045	0.95	.471	.306
통제	20~22세	-.020	.493	-.041	.268
변인	23~25세	-.005	.493	-.010	.233
	26세 이상	-.123	.494	-.248	.089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강점인식)					
	상수	-5.123	1.303	-3.931	.000
독립	사회적 지지	.948	.229	4.138	.000
매개	자기수용	.372	.059	6.269	.000
조절	내적 귀인성향	1.603	.290	5.524	.000
독립	사회적 지지				
x	x	-.188	.053	-3.543	.001
조절	내적 귀인성향				
	성별	-.055	.102	-.537	.292
통제	20~22세	.750	.523	1.435	.154
변인	23~25세	.986	.524	1.883	.061
	26세 이상	.849	.525	1.618	.107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건부 직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기수용이 투입된 후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내적 귀인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내적 귀인성향이 평균이거나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검증

조건부 간접효과	Effect	SE	<i>t</i>	<i>p</i>	LLCI	ULCI
M-1SD	.247	.063	3.920	.000	.123	.370
M(.000)	.112	.060	1.857	.064	-.007	.230
M+1SD	-.017	.079	-.300	.765	-.178	.13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を対象으로 강점인식의 선행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강점인식, 귀인성향 변인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은 모두 강점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된 사회적 지지(백승훈, 2019; 안은경, 2017; 이세진, 2020)와 자기수용(조영아, 이재은, 2018) 뿐만 아니라 내적 귀인성향도 강점인식의 유의한 선행변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기수용을 통해서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신성철, 2003; 장송희, 2015) 및 강점인식(백승훈, 2019; 안은경, 2017; 이세진, 2020)을 높이며, 자기수용이 강점인식을 강화한다는(조영아, 이재은, 2018)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갖는 부분 매개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다른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우선 김연희와 박경자(2001)가 강조하였듯이 사회적

지지는 그 자체로 개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즉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인이 가진 강점을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긍정적인 정보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정서적 측면이다(Cohen & Hoberman, 1983).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지지받고 수용 받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 심리 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나혜영, 2020; 박종석, 2020) 긍정적인 환경이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이 외부의 긍정적 환경을 자신의 내부로 귀인 하는 것, 즉 내적 귀인성향을 가지는 것이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내적 귀인성향과는 상관 없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환경적 자극이나 사건은 직접적으로 자기수용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강점인식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와 무관하게 높은 강점인식을 보이고, 내적 귀인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만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강점인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강점인식은 사회적지지 자체보다는 내적 귀인성향에 더 좌우되는 양상이다. 즉, 자기수용은 그 정의에 부합하게 개인의 평가적인 인지 특성에 덜 영향을 받는 전반적인 수용적 태도를 반영하는 개념인 반면 강점인식은 보다 인지적으로 통제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으며 강점인식은 자기수용과 같은 다른 자기 개념과는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질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강점인식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한데 반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선행 변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강점 인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강화하고, 강점 인식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강점 인식과 자기수용이 서로 상이한 구성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자기 수용에 비해 강점 인식은 인지적 평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상이한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상담 맥락에서 강점인식 및 강점활용에 관한 접근은(김지영, 권석만, 2013)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인지된 강점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개인의 인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본 연구는 강점인식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입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내적 귀인성향과 같은 적극적인 인지적 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적 사건을 자신의 강점에 귀인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도의 4년제 대학생이라는 특정 지역에 제한된 표본을 활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결과가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 및 대학생이 아닌 성인과 같이 다양한 표본에서도 일반화 될 수 있을지, 연구 대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귀인성향을 일반적인 인지적 태도로 가정하고 평가하였다. 선행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적 귀인성향이 외적 귀인성향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나혜영, 2020; 이자형, 황성훈, 2012), 귀인성향 자체는 성공 혹은 실패 상황과 같이 구체적인 환경적 사건에 대한 평가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강점인식을 촉진하는데 있어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강점 인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감자영, 허균 (2010). 귀인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차이 연구. **한국자료 분석학회**, 12(2), 923-933.
- 김기현 (2009). **군복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군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임, 조인주 (2017).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5(4), 241-251.
- 김민, 탁진국 (2017). 여자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279-301. doi:10.21509/kjys.2017.07.24.7.279
- 김민정, 이희경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 효과 검증: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600-616. doi:10.15703/kjc.15.5.201410.1811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중재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희, 박경자 (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정애 (2003).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수용,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6(2), 495-510.
- 김종운, 김미정 (2017).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희망 및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5(2), 93-122. doi:10.35151/kyci.2017.25.2.005
- 김지영, 권석만 (2013).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4), 783-802. doi:10.15842/kjcp.2013.32.4. 002
- 김지영 (2015). 강점개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495-513. doi:10.17315/kjhp.2015.20.3.001
- 김현옥 (2010). **고등학생의 귀인성향이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 이희경 (2019).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영향: 긍정 정서와 희망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419-442. doi:10.21509/KJYS.2019.09.26.9.419

- 김혜원 (2016). 청소년의 낙관성과 행복의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무조건 적 자기 수용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2(1), 277-302. doi:10.15820/khjss.2016.42.1.012
- 나혜영 (2020). **정서적 부정적 경험에 대한 귀인방식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예슬, 김창대 (2018).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이 매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부귀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9(6), 113-127. doi:10.15703/kjc.19.6.201812.113
- 박종석 (2020). **대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귀인 성향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서영 (2017).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113-140. doi:10.22251/jlcci.2017.17.20.113
- 백승훈 (2019). **중학생의 성취지향목표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은경 (2011). **수퍼비저의 완벽주의와 개인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집, 자기 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 경험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99-223.
- 신성철 (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성향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심명석 (2016). **대학생들의 행복증진을 위한 성격 강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doi:10.16881/jss.2017.07.28.3.269
- 안귀덕 (1986). **귀인성향, 지각학급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은경 (2017).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인식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은 (2012). **청소년의 성격강점이 진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

-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미 (2013). **고등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의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진 (202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강점 활용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2019).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 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조절 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애리, 심혜원 (2019). 남자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체형불안의 관계에서 강점인식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9), 53-77. doi:10.21509/KJYS.2019.09.26.9.53
- 이연희, 탁진국 (2019). 청소년 강점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학연구**, 26(6), 165-192. doi:10.21509/KJYS.2019.06.26.6.165
- 이윤정, 박미화 (2014).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3, 121-140.
- 이지형, 황성훈 (2012). 사이버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자존감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사이버교육연구**, 6(2), 23-40.
- 이재호, 정누리 (2015). 초등 정보과학영재의 귀인성향과 정보과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영재교육연구**, 25(4), 547-563. doi:10.9722/jgte.2015.25.4.547
- 이재은, 조영아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9(3), 113-132. doi:10.23840/agehrd.2017.49.3.11 3
- 이정순 (2011). **강점인식, 태도 및 활용과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원,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 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doi:10.15703/kjc.18.1.201702.205
- 이지혜 (2014). **완벽주의 차원에 따른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경, 이병록 (2011).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기능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8, 201-225.

- 임선아, 이선경 (2014). 중학생의 내적·외적 귀인성향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학업 관여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1), 143-159.
- 임성택 (2007).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및 공격충동의 관계에 대한 귀인성향의 통제효과: 청소년문제 상담에의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15(1), 105-118. doi:10.35151/kyci.2007.15.1.009
- 임애경, 윤채영 (2018).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인식 및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교육혁신연구**, 28(1), 313-331. doi:10.21024/pnuedi.28.1.201803.313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장송희 (2015).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 낙관성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대용, 채연희 (2015).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 논문집**, 2378-2404.
- 정바른 (2018). **반려동물 돌봄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호, 양태석, 박중규 (2019).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323-346. doi:10.22257/kjp.2019.09.38.3.323
- 정지현, 권석만 (2011).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 서울: 학지사
-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1-27. doi:10.21509/KJYS.2016.03.23.3.1
- 조영아, 이재은 (2018).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자기수용, 강점인식, 강점활용의 구조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2), 127-149. doi:10.23840/agehrd.2018.50.2.127
- 최유람, 이아라 (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사후반추사고로 조절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6), 93-113. doi:10.15703/kjc.20.6.201912.93
- 추미례, 이영순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6(1), 27-43.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Biswas-Diener, R., Kashdan, T. B., & Minhas, G. (2011). A dynamic approach to psychological strength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2), 106-118. doi:10.1080/17439760.2010.545429
-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the Fourth Wade Hampton Frost Lectur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2), 1007-123. doi:10.1093/oxfordjournals.aje.a117515
- Chamberlain, J. M., & Hagga, D. A.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63-176. doi:10.1037/t00471-000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doi:10.1111/j.1559-1816.1983.tb02325.x
- Gardner, H. (1999). **비범성의 발견** (문용린 역.). 서울: 해냄.
- Govindji, R., & Linley, P. A. (2007). Strengths Use, Self 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 for strengths coaching psychologist. *Interac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 143-153.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ayes, A. F. (2020). PROCESS Macro (Version 3.5)[Computer Software]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Wiley. doi: 10.1037/10628-000
- Hill, J. (2001). *How well do we know our strengths*, Paper presented at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Centenary Conference, Glasgow.
- Jach, H. K., Sun, J., Loton, D., Chin, T. C., & Waters, L. E. (2018). Strength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ce: Strength-based parent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se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2), 567-586. doi:10.1007/s10902-016-9841-y
- Jibeen, T. (2017).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and self esteem in relation to

- frustration intolerance belief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35(2), 207-221. doi:10.1007/s10942-016-0251-1
- Jimenez, S. S., Niles, B. L., & Park, C. L. (2010). A mindfulness model of affect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Positive emotions,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self-acceptance as regulatory mechanis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45-650. doi:10.1016/j.paid.2010.05.041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1, 15-63.
- Macin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doi:10.1111/j.1365-2850.2006.00959.x
- Mualifah, A., Barida, M., & Farhana, L. (2019). The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Social Adjustment o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Review*, 4, 719-724. doi:10.24331/ijere.628712
- Park, & Peterson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classification and handboo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roctor, C. L., Maltby, J., & Linley, P. A. (2011). Strengths use as a predictor of well-be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 Happiness Stud*, 12, 153-169. doi:10.1007/s10902-009-9181-2
-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J. C., & Lynn, S. J. (2011). Acceptance: An h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30(1), 5-56. doi:10.2190/ic.30.1.c

- Ying, W., Huamao, P., Ronghuai, H., Yanhua, H., & Jingjing, W. (2008). Characteristics of distance learners: Research on relationships of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self-efficacy, attribution and learning results. *Open Learning: The Journal of Open, Distance and e-Learning*, 23(1), 17-28.
- Zhang, J. W., Chen, S., & Tomova Shakur, T. K. (2020). From me to you: Self-compassion predicts acceptance of own and others' imperfe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6(2), 228-242. doi:10.1177/0146167219853846
-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ternal attribution

Lee, Eunkyong* · Kim, Yuj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ternal attribu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otal, the data from 327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in SP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self-acceptance, and internal attribution all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rengths knowledge. Second, self-acceptance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Third, internal attribution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but not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accept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various mechanisms may be involved in enhancing the strengths knowledge i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strengths knowledge, social support, self-acceptance, internal attribution, university students

투고일: 2021. 3. 8, 심사일: 2021. 5. 4, 심사완료일: 2021. 5. 11

* Sangji University